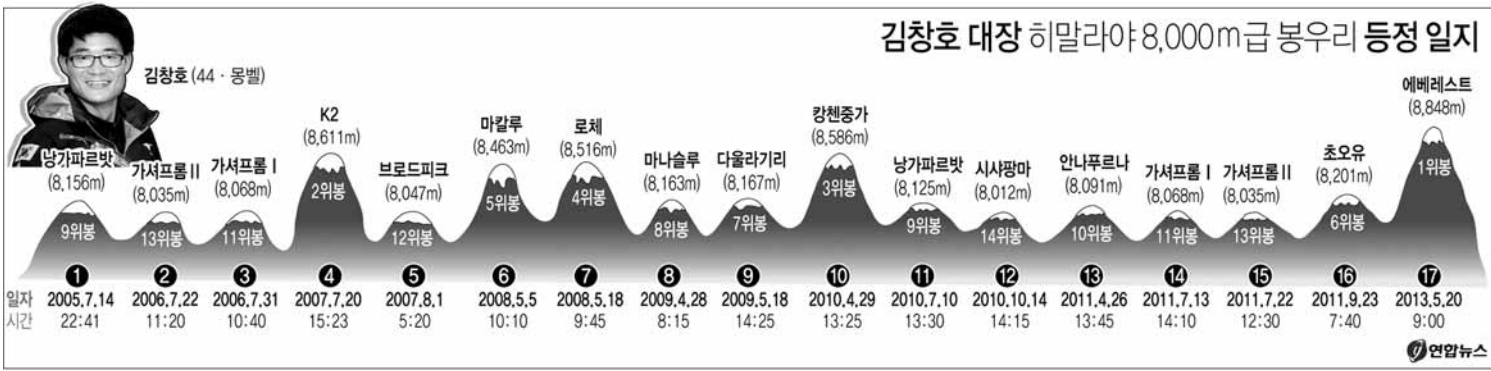


### 해발 0m 출발→카약 156km→자전거 893km→도보 162km... 에베레스트 8848m 친환경 등정



## 김창호, 세계 최단기간 無산소 14좌 완등

산악인 김창호(44·몽벨 홍보이사) 대장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848m) 정상에 올라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完登)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7년 10개월에 걸친 김 대장의 14좌 완등은 세계 최단기간이며, 아시아 산악인으로는 처음으로 모든 봉우리를 산소통 없이 오르는 '무산소 등정'의 대기록도 작성했다.

대한산악연맹에 따르면 김 대장은 지난 20일 오전 9시경(현지 시각)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 히말라야 8,000m 이상 14개 봉우리를 모두 올랐다고 밝혔다. 김 대장은 이번 원정에서 지금까지 등정한 13개 봉우리와 마찬가지로 산소통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에 올라 국내 최초 14좌 무산소 완등의 기록을 세웠다. 이는 아시아 산악인 가운데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네팔 히말라야 हिम중(7,140m)을 세계 최초로 오른 뒤 환호하고 있는 김창호 대장. <몽벨 제공>

대한산악연맹은 "김 대장은 특히 지난 2005년 7월 14일 남가파르바트(8,125m) 등정을 시작으로 7년 10개월 6일만에 완등을 달성해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폴란드 산악인 예지 쿠르초카가 세운 7년 11개월 14일 보다 1개월 8일을 앞당긴 것이다.

국내에서 현재까지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를 모두 오른 산악인은 엄홍길, 고 박영석, 한왕웅, 김재수 대장 등 4명으로 김 대장은 5번째 14좌 완등자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적으로는 31번째로,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5명의 14좌 완등자를 배출해 산악강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는 또 무산소로 14좌를 완등한 14번째 산악인이 됐다.

겨울 등반으로 모험적 알파니즘을 실천해온 김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는 이번 원정에서 'From 0 To 8848' 개념을 도입해 해발고도 0m

### 2005년 광주시산악연맹 남가파르바트 대원으로 첫 정상 등정

의 해안에서부터 8,848m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까지 화석연료를 일점 쓰지 않고 오르는 '무동력 친환경 등반'을 실천해 주목을 받았다.

인도 벵골만에서 콜카타까지 156km는 카약을 타고, 인도와 네팔 평원을 가로지르는 893km는 자전거로, 나머지 162km는 도보로 이동,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서 등반을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립대 산악부 출신인 김 대장은 지난 2005년 광주시산악연맹의 '한국남가파르바트 무팔대장벽 원정대' 대원으로 전년대 출신 이현조 대원과 함께 무팔벽 중앙악동 루트를 등정하며 8,000m급 14좌

레이스를 시작했다.

당시 김 대원은 세계적인 등반가 라인홀트 메스너가 1978년 등정 당시 정상 위에 표식으로 남겨둔 타이 캡슐을 27년만에 가져와 광주일보에 소개(2005년 8월 13일자 1면)되기도 했다.

김 대장은 이후 7,000m급 2개 봉 세계 최초 등정, 5,000~6,000m급 5개 봉우리 세계 최초 등정 등의 기록을 세웠다. 2006년 파키스탄의 가셔브룸 I (8,068m)·II 봉(8,035m), 2007년 K2(8,611m)·브로드 피크(8,047m)를 연속 등정했으며, 2011년에는 안나푸르나(8,091m)·가셔브룸 I·가셔브룸 II·초오유(8,201m) 등 한 해 동안 무려 4개봉 정

상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네팔에 남겨진 가장 높은 미등정봉이었던 '힘중(Himjung·7140m)'을 세계 최초로 등반해 클라이밍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황금패럴상 아시아상'을 수상했다.

대한산악연맹 관계자는 "김 대장의 최단기간 14좌 완등은 체력과 고산 적응능력, 도전정신 외에도 원정 대상 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치밀한 준비의 성과물"이라며 "대부분의 원정을 저비용, 소규모로 해 온데다 이번 등반에선 산악환경에 대한 배려의 메시지를 담아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칸첸중가 등정 박남수 대원 하산도중 숨져

### 에베레스트 원정대 서성호 대원도 등정 후 사망

세계 3위의 거봉인 칸첸중가(8,586m) 등정에 성공한 '2013 한국 칸첸중가 원정대' 광주 출신 원정 대원이 하산 과정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에베레스트(8,848m) 등정으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김창호 등반대의 대원 한 명도 하산 도중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13 한국 칸첸중가 원정대'에 따르면 박남수(47·광주시산악연맹 산악구조대 지도위원) 등반대장이 21일 오후 칸첸중가를 등정하고 하산하다 해발 7,8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원정대 관계자는 "전날 22시간에 걸친 악전고투 끝에 오후 4시15분경(현지시각) 김흥빈 대장과 정상에 오

른 박 대장이 캠프로 귀환하지 않아 대원들이 등반루트를 확인한 결과 해당 지점에 숨겨 있었다"고 밝혔다.

원정대는 박 대장이 캠프4(7,500m)에서 정상까지 무려 1,000m를 22시간 이상 걸려 등정한 뒤 지루하고 험한 바위능선 길을 되돌아와야 하는 칸첸중가 특유의 지형여건상 체력소모가 많아 탈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정상에 올랐던 김흥빈(49·광주시산악연맹 이사) 원정부대장은 탈진과 설맹증세에도 불구하고 베이 스패드를 향해 귀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주시산악연맹은 사고수습대책위를 꾸려 네팔 현지에서 긴급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산악연맹은 히말라야 14



박남수 서성호

## "6월8일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 개방합니다"

광주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6월 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 2차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무등산 정상개방은 국립공원으로 승격 이후 지난 4월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최근 무등산에 철쭉이 만개하는 등 녹음이 짙어지면서 전국에서 많은 등산객이 정상개방을 요청해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2차 개방을 추진하게 됐다. 또 동서교류와 국민대화합차원에서 추진중인 '달빛동맹'(광주-대구 공동 사업)으로 대구·경북 호남항우회원 40여명이 무등산을 찾는다.

개방노선은 서석대에서 군부대 후문을 통과해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km(서석대→부대 후문→인왕봉→지왕봉→부대 정문) 탐방 코스이다.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 개방 행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무등산 정상은 군부대 영내이므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군사시설을 포함한 통제구역 출입 및 사진촬영이 금지되며, 산발 예방을 위해 화기물은 휴대하지 않아야 한다.

김동수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초여름 날씨로 고온이 예상됨에 따라 음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등 안전 산행에 만전을 기대할라"면서 "특히 개방 행사일이 방문객이 많은 토요일인 만큼 질서유지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공원녹지과(613-4211~13), 무등산 생태문화관리사무소(613-7851~2),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227-1187),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371-1187)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전남테크노파크, 적자 내고도 성과급 잔치

### 감사원 적발... 불합격자 다른분야 합격 처리도

전남도 출연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가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하게 처리하고, 정관을 어기고 수역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1일 발표한 전국 테크노파크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 10월 운영 지원 인력 1명 등 총 4명을 채용하면서 불합격자를 합격 처리해주는 등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이 결과 평균점수가 낮은 사람이 합격하고, 응시한 분야에 불합격 한

사람을 다른 분야에 서류를 낸 것처럼 꾸며 합격시켰다.

회계·결산 직무 신규 직원(제단 6급)을 채용하면서 임용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문화인류학 전공자를 합격자로 결정·공고하고, 이 사람이 석사 학위자라는 이유만으로 5급으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6급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이 5급으로 뽑은 셈이다.

이 과정에 전남테크노파크의 실무팀장과 실장, 원장 등은 아무런 제재 없이 이를 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연구원과 팀장, 실장 등 3명을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감사결과 지난 2010년 당시순수실이 37억원에 달했지만 임의대로 감가상각비와 이자수입을 제외한 7억 5200만원을 충수익으로 확정된 뒤 정관을 어기고 이 중 25% 수준인 1억 7400만원을 정규직원 63명에게 성과연봉으로 지급했다.

이 밖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게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2008년 17억원의 물품 구매 예산이 6대를 구입했는데 3대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 개림동 ● 동부소방서 ● 구.한미쇼핑 ● 대한생명 ● 북경당 한의원 ● 고객 주차장 ● 주유정류장

진료문의 (062)227-7575  
평 일 :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후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계로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당일대출!**

▶ 건물/상가 추가대출  
▶ 아파트/주택 추가대출  
▶ 전. 답. 나대지  
▶ 공유지분/미준공건물  
▶ 부동산 취득자금  
▶ 사업자금

※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  
최저 월 1%~월 3% 최고 연 39% 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

**정규직 사원모집**

당사는 광주 삼성전자(주) 중, 대형 금형 수정/제작 전문 1차 협력업체로서, 2013년 물량증가 및 사세확장으로 인한 (광주 첨단2단지 내) 현지 공장 신설로 인하여, 참신하며 책임감 있으며, 근면 성실한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인원	자격요건
금형사상(조립/분해)	00명	- 초보 가능 / 관련 직종 경력자 우대
CAD/CAM	00명	- 사출금형(중/대형) 유경험자 우대
CNC M/C	0명	- 학력 : 무관
CNC 방전	0명	- 나이 : 21~45세 이하(군필 및 이에 준하는 신분)
와이어컷팅	0명	- 관련부서 자격증소지자 우대
사출	0명	- UG 프로그램 사용자 우대(CAD/CAM)
3차원 측정	0명	-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식당/청소	0명	- 식당 / 청소 : 나이제한 없음
		사내식당 유경험자
		사내청소 경험우대/초보가능

● 근무지 : 광주 첨단2단지 내  
● 기간 : 총원시 까지  
● 급여 : 면접후 결정  
● 구비서류 : 1) 이력서..... 1통  
2) 사진..... 2매  
3) 주민등록등본..... 1통  
4) 건강진단서..... 1통  
5)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복지혜택**  
- 4대보험, 상여금(300%), 퇴직금, 기숙사, 근속수당, 성과제 인센티브  
- 사내식당(조, 중, 석, 야식제공), 생일축하금, 명절선물, 월회식비지급  
- 연/월차,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

**전형방법**  
- 전화 후 회사방문(매주 목, 금요일 14시 정기 면접) / 구비서류 지참  
- FAX 및 E-mail 접수가능(yoo00@naver.com)

(주) 신 흥 정 밀  
TEL. 054-473-6697 FAX. 054-473-6698 H.P. 010-6309-2488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 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